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 常時 운영中

어려운 학생 돕기 지속적으로 나서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지난 1개월 동안 성금을 기탁한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과 기탁된 성금을 전달받은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포천사회가 보다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무연 성하꽃화원 대표가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로 3만원을 기탁했고 백경식 포천송우주공4단지 부녀회장이 3만원, 김소춘씨가 자동이체로 5만원과 포천모범운전자회 회원일동이 50만원을 기탁했다.

또 강육자 늘봄꽃화원 대표 2만원(자동이체), 김종현 본지 조사위원장이 20만원(자동이체), 서금자 송우보건소 직원이 2만원(자동이체), 임경순 본지 주부명예기자단장이 3만원(자동이체)을 각각 기탁해 모두 88만원이 접수됐다.

성금전달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모금된 성금을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27일 현재 43개 학교 219명에게 2천19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성금전달은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신봉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빌구은 학생과 이가림, 김중수, 김규욱, 곽동훈 학생 등 5명에게 각각 10만원씩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나중에 사회지도자가 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또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김순희 내촌면지부장이 내촌초등학교 6학년 백민식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와 교복구입비로 30만원을 고장촌 한일교회에서 전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신봉초등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김순희 내촌면지부장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고장촌 한일교회 목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外國人 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 10月 개최

本紙 자문위원회 제19회 임원회의에서 議決

본지 자문위원회(위원장 양주승)는 22일 제19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인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포천신문이 공동주최하기로 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안병호 총무의 사회로 제18차 임원회의 회의록 보고, 2005년도 재무보고의 건,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인준의 건, 신임 자문위원 위촉의 건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양주승 자문위원장은 "올해는 5·31지방선거 취재일정 등 바쁜 일정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더욱 사랑하는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본지 최호열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2월15일 창간 16주년 기념식에 보내주시는 자문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며 올해 4대 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올 한 해에도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자문역할"을 부탁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이미숙 의정부



본지 자문위원회는 22일 제19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인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포천신문이 공동주최하기로 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시무용단장을 신임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의결했으며 관내 고등학교 졸업반 대상 특강 추진, 관내 유적지 탐방, 학력경시대회, 미래의 리더양성 등 다양한 사업계획안을 처리했다.

한편, 본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3월7일 오후6시30분에 포

천신문 대회의실에서 40여명의 자문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대행 부위원장, 윤중성 감사, 장동원 문화예술분과위원장, 강경만 사회법률분과위원장, 안병호 총무 등이 참석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지역 태국 勤勞者 간담회

26일, 주한 태국대사 포천시 방문



와신 티라베치안 주한 태국대사는 26일 포천시청을 방문해 태국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와신 티라베치안 주한 태국대사는 26일 포천시청을 방문해 태국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모임에는 포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 근로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운국 포천시장도 자리를 함께 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또 간담회 후에는 오찬을 함께 나누며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앞서 박운국 포천시장은 티라베치안 대사와 환담하는 자리에서 6.25 전쟁 당시 태국 젊은이들의 값진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국내 기업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포천시가 태국에 대한 보은의 기회를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군군은 53년 7월부터 72년 6월까지 약 19년 동안 포천시 영북면에 주둔했으며 영북면 문암리에는 태국군 참전기념비와 태국 전통양식의 누각이 조성돼 있다. 또 태국군이 참전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매년 11월 7일에는 이곳에서 '태국군 한국전쟁 참전 기념식'이 열리고 지난해에는 와신 티라베치안 주한 태국대사가 포천시 명예 시민패를 받는 등 포천시와 태국은 각별한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老人公경 기업체가 앞장서

한화콘도 2006 영북노인회 정기총회 지원

영북면 노인회(회장 임은재)는 지난 21일 11시 30분 한화콘도 세미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영북면 19개리 20개 경로당 회장 및 총무 40명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개회사에 이어 감사보고, 포천시지회장 인사, 영북노인회장 인사, 한화콘도 본부장 인사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은재 영북 노인회 분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회원여러분과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맙고 감사하며 주시는 한화콘도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동해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은 "노인회장은 면단위 사회단체장으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포천시 노인회가 269개로서 시 최대조직이나 기금부족 등 열악한 운영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각 노인회는 자체적인 자금확충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조용하 한화콘도 본부장은 "본인도 어른이 넘으신 부모님이 계신데 어르신들을 공경하

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늘 회의 뿐 아니라 앞으로 어버이날, 부활 등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콘도도 이날 행사를 위해 자체 차량을 운행하고 식사와 운전목 및 20개 각 경로당에 소화기를 제공하는 등 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북면 20개 노인회장은 다음과 같다.

- ▶영북면 분회장 임은재 ▶각을 이영구 ▶개나리 이육자 ▶대회산 임수영 ▶문암리 김역만 ▶문암리 탐동 박아선 ▶북지회관 신경호(폐쇄) ▶산정리 전천원 ▶소회산리 안병여 ▶아미리 안순길 ▶아미리 권영찬 ▶운천3리 신재환 ▶운천4리 박준화 ▶운천5리 오인수 ▶운천8리 이영재 ▶운천9리 유인형 ▶자일1리 박노린 ▶자일2리 박병수 ▶자일3리 김하경 ▶자일4리 김진태 ▶장수 최상근
-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현판식

포천경찰서, 믿음직한 警察像 구현 위해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배)는 지난 22일 경찰서 수사과에서 서장, 각 과장,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나라 믿음직한 경찰상 구현을 위한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현판식'을 갖고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강력사건의 빈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서부터 교통수동에 이르기까지 국민불편, 불안요소를 적극 제거함으로써 사회안전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믿음직한 경찰상을

구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는 6월까지를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폭력 등 민생범죄 집중단속, 지구대별 전략적 방범활동 전개, 획기적인 교통안전,소통대책 마련,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 체계 구축, 3+1운동 전개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사과장을 반장으로 한 전



포천경찰서는 지난 22일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현판식'을 갖고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담 추진반을 편성하여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현역 군인 초등생 7명 성폭행

같은 동네 사는 어린이 여고생 피해자

25일 포천경찰서는 같은 동네 사는 초등학생 7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모부대 안모(23세) 일병을 긴급체포해 군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의하면 안 일병은 휴가중이던 지난 9일 포천시내 모아파트 승강기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8살 A양에게 '배가 아파 욕실에서 일을 볼래'며 말을 바 달라'며 욕상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일병은 2005년8월 군입대

전인 2월27일 오전 10시30분경 포천 모초등학교 인근 폐가로 초등학생 B양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4년과 2005년 사이 안 일병은 포천일대에서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5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일병은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여고생 C양(고2)을 지난해 11월28일 포천 모고등학교 골목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아파트 CC-TV에 녹화된 범인의 사진을 확보하고 탐문수사 끝에 안 일병을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또 경찰은 안 일병의 집에서 범행 당시 착용했던 모자가 달린 점퍼와 티셔츠 등 옷과 운동화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5건의 범행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여죄가 있는지 안 일병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감식을 의뢰했다.

아울러 2년전에 발생한 여중생 업무모양 피살사건과 안 일병과의 관련 여부를 추궁했으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e8@paran.com

전기 전문공사업체 고은종합전기(주)



최 두 열 대표이사

전기설비 고장발생시 긴급출동 후 보수작업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기타 전기공사
- 빌딩
- 호텔
- 소방설비공사

고은종합전기(주)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전화 : (031)542-9771 ~ 4 / Fax : (031)542-1115